

나가사키 평화 선언

우리 고향에 원자 폭탄이 덮친 그 날로부터 정확히 75 년, 한 세기가 4 분의 3 이나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핵무기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째서 핵무기를 여태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목숨을 무참히 빼앗으며 인간답게 죽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방사능으로 인한 고통을 평생 짊어지게 하는 이 끔찍한 무기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75 년 전 8 월 9 일에 원폭으로 아내와 아이를 잃고, 그 슬픔과 함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음악에 담아 전하여 온 작곡가 기노 후미오씨는 수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그 날, 검붉게 퍼지는 원자구름 아래서 펼쳐진 참극. 흐늘거리며 타버린 불덩어리 형상과 폐허 속에서 솟처럼 검게 그을려 통나무와 같이 데굴대는 수많은 시체, 머리칼은 바싹 타버리고 얼빠진 눈으로 헤매는 여자, 그러한 갖가지 환영은 매해 돌아오는 8 월 9 일이면 머릿속에서 생생히 되살아난다.

피폭자들은 이 지옥과 같은 경험을 다시는 누구도 겪게 하여서는 안 된다며, 필사적으로 그 원자구름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핵무기의 진정한 무서움은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우리 주변에 퍼지기까지 그 무서움을 눈치채지 못하였던 것처럼, 만약 핵무기가 사용될 때까지 인류가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올해는 핵확산 금지 조약(NPT)이 발효된 지 50 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조약은 '핵보유국을 이 이상 늘리지 않을 것', '핵무기를 줄이는 데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한,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해 버리는 등 핵보유국들 사이에 핵 군축을 위한 약속을 깨트리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성능 핵무기와 사용하기 쉬운 소형 핵무기의 개발과 배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핵무기가 사용될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00 초." 지구가 멸망하기까지의 시간을 나타낸 '종말 시계'는 올해 가장 짧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위기를 상징합니다.

3 년 전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핵무기 금지 조약은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인류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조약입니다. 핵보유국이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는 이 조약을 만들기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핵 군축은 오히려 너무 늦은 것입니다.

피폭으로부터 75 년, 그리고 국제연합이 창설되고 75 년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핵무기 근절이 인류가 스스로 한 약속,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 1 호'임을 우리는 상기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나가사키를 방문한 교황께서는 '열쇠'가 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핵무기로부터 해방된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호 불신의 흐름을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참여할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올해 코로나 19 와 계속해서 싸우는 의료진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피폭된 지 75 년이 되는 오늘까지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견디고 힘들었던 체험담을 이야기하며 세계인을 위하여 경고를 이어 온 피폭자들에게도 그와 마찬가지로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를 담아 박수를 보냅니다.

이 불과 10 초 정도의 박수를 보내는 행위로도 평화의 고리는 커집니다. 오늘 큰 천막 안에 걸린 고등학생들의 글귀에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종이학을 접는 작은 행위로도 평화를 향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평화의 문화'를 시민사회에 뿌리내리게 합시다.

청년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구 온난화, 핵무기 문제의 공통점은 지구에 사는 우리가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 미래의 지구에 핵무기는 필요한가요? 핵무기가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을 함께 열고 함께 걸어갑시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에게 호소합니다.

'상호 불신'의 흐름을 깨고 대화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바야흐로 '분단'이 아닌 '연대'를 위한 행동을 하여 주십시오. 다음 해 열릴 핵확산 금지 조약(NPT)의 재검토 회의에서 핵 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등 핵 군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에 호소합니다.

핵무기의 무서움을 겪은 나라로서 하루빨리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과 비준을 함과 동시에 동북아의 비핵 지대 구축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결의를 담은 일본 헌법의 평화 이념을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원폭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폭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 아직 피폭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폭 체험자를 구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9 년이 지났습니다. 나가사키는 방사능의 위협을 직접 겪은 도시로서 부흥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후쿠시마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19 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과 함께 원자폭탄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추도의 뜻을 전하며, 나가사키는 히로시마, 오키나와, 그리고 전쟁으로 많은 생명을 잃은 도시와 평화를 찾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핵무기 폐기와 영원한 평화 실현에 계속 힘쓸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2020 년 8 월 9 일

나가사키 시장 다우에 도미히사(田上 富久)